

인도에서의 헌신적인 봉사

하나님의 사업에 모든 시간을 다 바쳐 일하게 되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우리 부부는 봉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체험했던 훌륭한 경험을 회상해 봅니다. 인도의 겸손한 회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매우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회원들이 큰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이러한 예로서, 수개월 동안 자기 마을에서 손으로 우물을 파는 일을 했던 어느 자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마치면 15,000루피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의 절반은 그녀가 우물을 일정한 깊이까지 파올 때 지불되며, 나머지 금액은 그 일이 완료되면 지불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네 자녀가 딸린 한 가족이 거주하는 방 한칸 짜리 조그만 집을 늘리기 위한 벽돌을 사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첫번째 7,500루피를 지불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을 맡긴 청부업자들은 그녀가 기독교식의 이름을 쓰는 것을 알고는 그녀에게 돈을 지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청부업자들은 그녀가 힌두교식의 이름으로 바꾼다면 돈을 지불하겠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단지 지불 신청서에만 힌두교식의 이름을 쓰도록 요구했으나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씀으로써 그것을 부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는 임금이 매우 적었으므로 그녀에게는 그 돈이 매우 큰 액수였습니다. 참으로 그녀는 주님께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많은 사람들의 생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이 평온함을 느끼며 얼굴에 광채를 발합니다.

이러한 회원들 중 많은 가정이 맨 흙으로 된 마루에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담요 몇 장을 갖고 생활하며 음식은 집 밖의 바위더미에서 만듭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들이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삶에 그러한 성장과 발전이 이룩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새로운 회원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물론경 및 교리와 성약을 인용하며 말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배우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께서는 좀더 많은 부부가 봉사하도록 요청하셨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대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과 봉사로 채워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봉사하기 위해 세번째 부름이 오기를 고대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이며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에게서 인도를 받습니다. 물론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전입니다.

도노반 브이 및 캐롤 케이 호웰

위의 기사는 1988년 1월부터 1989년 7월 까지(선교 사업기간) 인도에서 봉사하였던 호웰부부의 편지 가운데 일부이다. 그들은 미국 아이다호주 출신이다.

태버내클 합창단 음악과 진리의 말씀 60주년 방송 기념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은 7월 16일 매주 방송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음악과 진리의 말씀”의 60주년 방송 기념을 하였다. 합창단은 1929년 7월 15일에 최초로 미국 전역에 방송을 하였으며 그 후 일요일마다 방송되어 미국 라디오 사상 가장 연륜이 오래 된 프로그램이 되었다. 조지 부시 미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물론 교회 지도자와 방송 관계자들로부터 합창단에게 찬사가 주어졌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방영되는 합창단 프로그램은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며, 녹화로 전세계에 보내진다. 유럽, 중앙 아메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불리워지는 합창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 밖에 태버내클 합창단은 수상 기록, 텔레비전 특별 찬조 출연 및 미대통령 취임식 때에 “아메리카 합창단”으로서 참석하는 것으로 유명해졌다.

[유럽 지역을 위해] 가끔 태버내클 합창단의 정규 방송에 다른 음악 그룹이 참여하도록 초대된다. 합창단의 60주년 기념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1주일 전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온 덴마크 라디오 합창단이 함께 참여했다.*

'89 하반기 부산 스테이크 대회

부산 스테이크 대회가 아시아 지역 회장단인 에드니 와이 고마쯔 장로의 감리로 지난 9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7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정 와드에서 개최되었다.

“물몬경과 기타 경전을 사용하여 복음을 배우며 신앙을 강화함”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스테이크 부장단의 개편과 많은 신권 역원들의 새로운 부름과 신권 승진이 있었다.

그동안 스테이크 부장단으로 수고한 민혜기, 황금소, 양기욱 형제가 해임되고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으로 수정 와드 감독인 홍성주 형제가 부름 받았고 제1보좌에 김홍점 형제, 제2보좌엔 김정열 형제가 각각 부름 받았다.



좌로부터 김 정열 형제(제2보좌), 홍 성주 스테이크 부장, 김 홍점(제1보좌)

또한 수정 와드 감독으로 백용부 형제, 온천 와드 감독으로 김상섭 형제, 연산 지부 지부장엔 정희모 형제, 울산 지부 지부장엔 김학재 형제가 각각 새로이 부름 받았으며 스테이크 부장으로 수고한 민혜기 형제는 부산 선교부장단에 새로이 부름 받았다.

이날 주연사로 말씀한 고마쯔

장로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을 때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소망할 때 경전을 읽는다.”라고 말씀하며 물몬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씌어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몬경을 읽고 계명에 순종할 때 번창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

-장미경 자매-

동대문 스테이크 하반기 대회

동대문 스테이크 하반기 대회가 “복음 중심의 가족 생활을 강화함”이라는 주제로 8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아시아 지역 회장인 더글라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의 감리로 동대문 스테이크 센터인 용두 와드에서 있었다.

400여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성전 사업과 선교 사업에 있어서 회원의 참여가 강조되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특별히 동대문 스테이크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6년 동안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한 손승은 형제가 해임되고 조만구 형제가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 받았으며 제1보좌에는 손승주 형제, 제2보좌에는 강경구 형제가 각각 새로이 부름 받았다.

또한 새로운 대신권 소유자로



앞줄 왼쪽부터 강 경구 부장(제1보좌), 조 만구 스테이크 부장, 손 승주 부장(제2보좌), 뒷줄 왼쪽부터 최 성현 행정 서기, 조 봉재 집행서기, 우 병인 재정서기

대제사 4명과 장로 2명이 신권 승진이 있었다. 새로이 부름 받은

조만구 부장은 “우리 모두는 변화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말씀하며, 성전에 자주 방문 할 것을 권고했다. *

제107기 수료

(1989. 9. 18~9. 29)

서울 선교부

김 영란 자매(화곡 와드)

김 상문 장로(안동 지부)

양 덕준 장로(대천 지부)

서울 서 선교부

김 은광 장로(진해 와드)

부산 선교부

최 옥현 자매(부평 와드)

최 정식 장로(성남 중앙 지부)

한 정희 자매(개봉 와드)

대전 선교부

이 미환 자매(인천 농아 지부)

신 연속 자매(반월 지부)

이 현미 자매(신림 와드)

장 영석 장로(태백 지부)

김 범진 장로(태능 와드)

권 태광 장로(제천 지부)



제107기 선교사 일동

강서 스테이크 후반기 대회

강서 스테이크에서는 8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에 걸쳐



말씀하고 있는 박 내정 스테이크 부장

화곡동에 위치해 있는 화곡 와드에서 모사이아서 3장 19절을 주제로 스테이크 대회를 개최하였다.

토요일에는 신권 대회와 일반 토요 대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말씀과 현실적인 사회문제에서 성도들이 대처할 수 있는 권고의 말씀이 주어졌다.

성전 참여와 가족 기록의 작성이 강조되었고 용서의 계명과 타락해가는 사회의 악으로부터 각자 자신을 합당하게 지키도록 강조되었다. 다음날 안식일의 모임에는 6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박내정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

와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스노우 서울 서 선교 부장 부처도 참여하여 말씀을 했다.

신권 승진에는 멜기세덱 신권의 대제사 1명과 멜기세덱 신권의 장로 8명이 각각 지지 성임되었으며 보조 조직의 개편도 있었다. 박내정 스테이크 부장은 말씀을 통해 특히 "교만"을 조심할 것을 강조했다. 부와 학식, 권력이나 외모, 시기나 질투, 논쟁 등이 교만의 근원이 되며 애용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성신을 따를 때 겸손해 질수 있다고 말씀했다.*



말씀을 듣고 있는 회원들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105기 수료

(1989. 7. 17~7. 28)

서울 선교부

구 은주 자매(상도 와드)

서울 서 선교부

김 선곤 장로(방어진 와드)

권 은정 자매(진해 와드)

이 은아 자매(풍향 와드)

부산 선교부

최 채현 장로(모래내 지부)

김 영상 장로(신월 지부)

서 병기 장로(예성 지부)

이 경화 자매(태능 와드)

대전 선교부

임 영순 자매(송림 와드)



제105기 선교사 일동

제106기 수료

(1989. 8. 14~8. 10)

서울 선교부

이 호범 장로(삼천포 지부)

강 현구 장로(수성 와드)

이 전우 장로(진주 와드)

서울 서 선교부

박 진민 장로(목포 와드)

조 윤제 장로(울산 지부)

박 지연 자매(괴정 지부)

김 영옥 자매(밀양 지부)

여 영선 자매(창원 지부)

손 기준 장로(안동 지부)

부산 선교부

김 병철 장로(예성 지부)

강 명선 장로(봉천 와드)

남궁 회정 자매(신평 와드)

김 은희 자매(성남 와드)

대전 선교부

한 종완 장로(수정 와드)

허 정윤 장로(성남 와드)

김 은희 자매(공항 지부)

서 정필 자매(신림 와드)



제106기 선교사 일동